

산업 부진 금리 인상 가계 부채

3중고 악순환

“韓경제, 활력을 높여라”

2019 위기를 경영하라
3월 이후 경기 하강국 진입 검토
2020년 상반기까지 지속 전망
완화적 통화정책 등 기조 유지해야



〈2019 경제정책 기본방향〉

비전·전략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 정책방향**
1.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2.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3.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4.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16대 중점 추진과제

1. Big Project - 민간, 공공 투자 확대
2. Big Deal - 공유경제 활성화
3. Big Innovation -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4. Big Trust - 소득증대, 부담 경감

다. 그러나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악화된 심리를 즉각적으로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 이사는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수부진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마중물로 469조 6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작년보다 9.5% 늘어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10.7% 이후 최대의 재정 확장이다.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두 배가 넘는다. 경제가 성장하는 정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을 풀겠다는 의도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도쿄에 등장한 ‘文대통령과 남북한 군인들’

코믹마켓에 한국군 매니아 모여



일본 도쿄에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한 군인들이 등장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도쿄 고토구에 위치한 초대형 전시관 빅사이트에서 지난해 12월 29~31일까지 열린 일본 최대 서브컬처 행사인 코믹마켓에 일본 내 한국군 매니아들이 모여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넥타이와 정장을 차림을 한 이시이 요스케(37·한국명 전궁주)씨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문대통령의 커스텀플레이(코스프레)를 행했다.

이시이 씨는 화강암 패전의 야전상의를 착용하고 ‘워리어플랫폼’의 시연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이날 참가자들에게 보여줬고, 그의 주변에는 한국군과 한국정치인을 코스프레한 수 많은 군사매니아가 뒤를 따랐다.

이날 이시이 상의 코스프레 영상은 무

한국군 매니아 이시이 요스케 씨(37)가 29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다양한 포즈로 문재인 대통령을 커스텀플레이 하고 있다.

려 15만 명이 리트윗 하는 등 일본 국내 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북해도 스키장에서 한국 육군의 실상 위장복을 착용하고 능숙한 스키 실력을 뽐낸 이시이 씨는 한국에도 팬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한국군 매니아다.

30일에는 남북한 군인들이 노란색 군사분계선 풋말을 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이 재연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완전한 비핵화’ 재천명…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다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등 방송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를 통해 “6·12조미(북미)공동성명에서 천명한대로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하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부터 진행된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는 올해로 벌써 7년째 이어졌다.

/김승호 기자 bada@

신년사

“새로운 평화 만들기, 軍의 사명”

정경두 국방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평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한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사(지휘서신 3호)를 통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국군장병과 국방가족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주인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강력히 힘으로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평화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한 우리 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평화는 누군가

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새해 우리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선조들의 신념과 용기는 우리나라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토대가 됐다. 역동적인 안보상황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형철 기자

“시민 삶 바꾸는 10년 혁명 완성”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지 못했고, 추격형 경제로부터 혁신적 경제로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일 신년사에서 “경제를 살리는 박원순의 10가지 생각”을 밝히며 “정부가 약속대로 2인의 부시장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중 한 명을 반드시 기업 출신 경제전문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혁신을 위해 박 시장은 “경제 전문 부시장이 서울의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며 “시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성과 목표를 엄밀히 평가해

오류와 실수를 바로잡아가겠다”고 했다.

창업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서울 미래 성장펀드를 조성,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혁신성장기업 2000여 곳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임기 동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시민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

“성실한 마음으로 교육의 변화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작은 변화를 꾸준히 지속해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적수천석(滴水穿石)의 말처럼 지속적인 노력과 성실한 마음으로 교육의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한 존재이지만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 앞에 놓인 바위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며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작은 변화를 모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교육 2기를 시작하면서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학생들의 발걸음 뿐 아니라 선생님, 교직원분들의 출근길 또한 설렘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교육감으로서 저의 의지이다”라고 말했다.

썸덕썸덕리 소실 어린이집에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저는 ‘학교가 아름다운 건,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더불어 노력하는 교육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hys@